빛나는 어린이 문학 5

글 이주홍
그림 김동성

# 북치는 곰과 이주홍 동화나라



웅진닷컴

**글쓴이**

이주홍 선생님은 1906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25년 '신소년' 지에 '뱀새끼의 무도' 를 발표한 이후,
어린이의 마음을 담은 재미있는 동화를 많이 쓰셨습니다.
작품으로는 〈못난 돼지〉, 〈피리 부는 소년〉, 〈못나도 울엄마〉 등이 있습니다.

**그린이**

김동성 선생님은 1970년에 태어나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안내견 탄실이〉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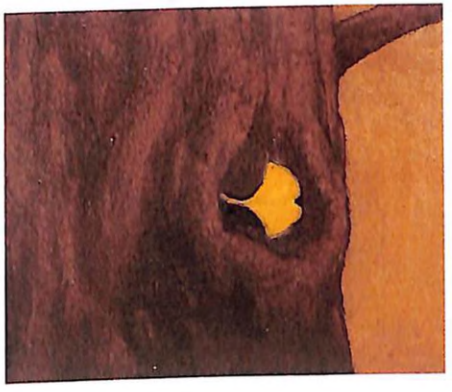
북치는 곰과 이주홍 동화나라

2000년 8월 30일 초판 1쇄 펴냄
2004년 5월 10일 초판 6쇄 펴냄
글 이주홍
그림 김동성
펴낸이 김준희
펴낸곳 주식회사 웅진닷컴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웅진빌딩
편집부 3670-1843, 영업부 3670-1862~6
일원화 공급처 (주)북센
전화 031)945-2900, 팩스 031)945-3412
출판등록 1980년 3월 29일 제 1-0352호
편집이사 박익순
편집장 이미혜
책임편집 이해선
편집 이화정
디자인 하늘 · 민

글 ⓒ 이주홍, 2000 / 그림 ⓒ 김동성, 2000
ISBN 89-01-02939-1 · 89-01-02815-8(세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ongjin.com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주)웅진닷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맺은 특약에 따라 검인을 생략합니다.

# 북치는 곰과 이주홍 동화나라

글 • 이주홍　그림 • 김동성



웅진닷컴



# 차례

북치는 곰 4

은행잎 하나 2개

우체통 4개



# 부치는 곰





설날 아침, 야광귀 가족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막내둥이 똘똘이가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올해에는 제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해내고 올래요."
너무도 당돌한 말에 가족들은 모두 똘똘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내려가셔도 실패했고, 네 형들이
내려가서도 모두 실패하고 돌아온 일을,
어찌 네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해내고
오겠다는 거야. 당치도 않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집에서 설놀이나 하고 놀아요!"
"염려 없다니까요. 전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들의 속임수에 말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거뜬하게 성공하고 올 테니 허락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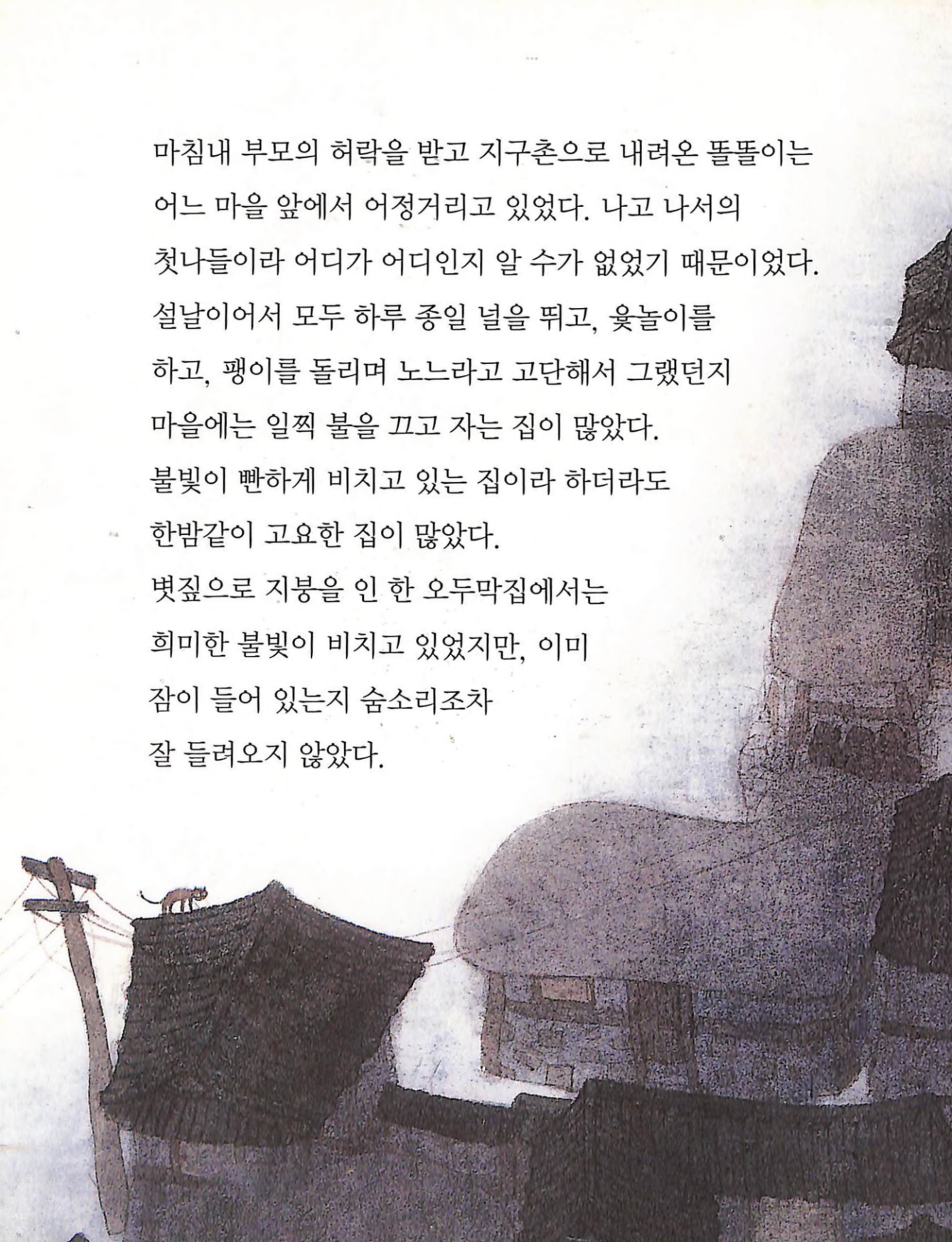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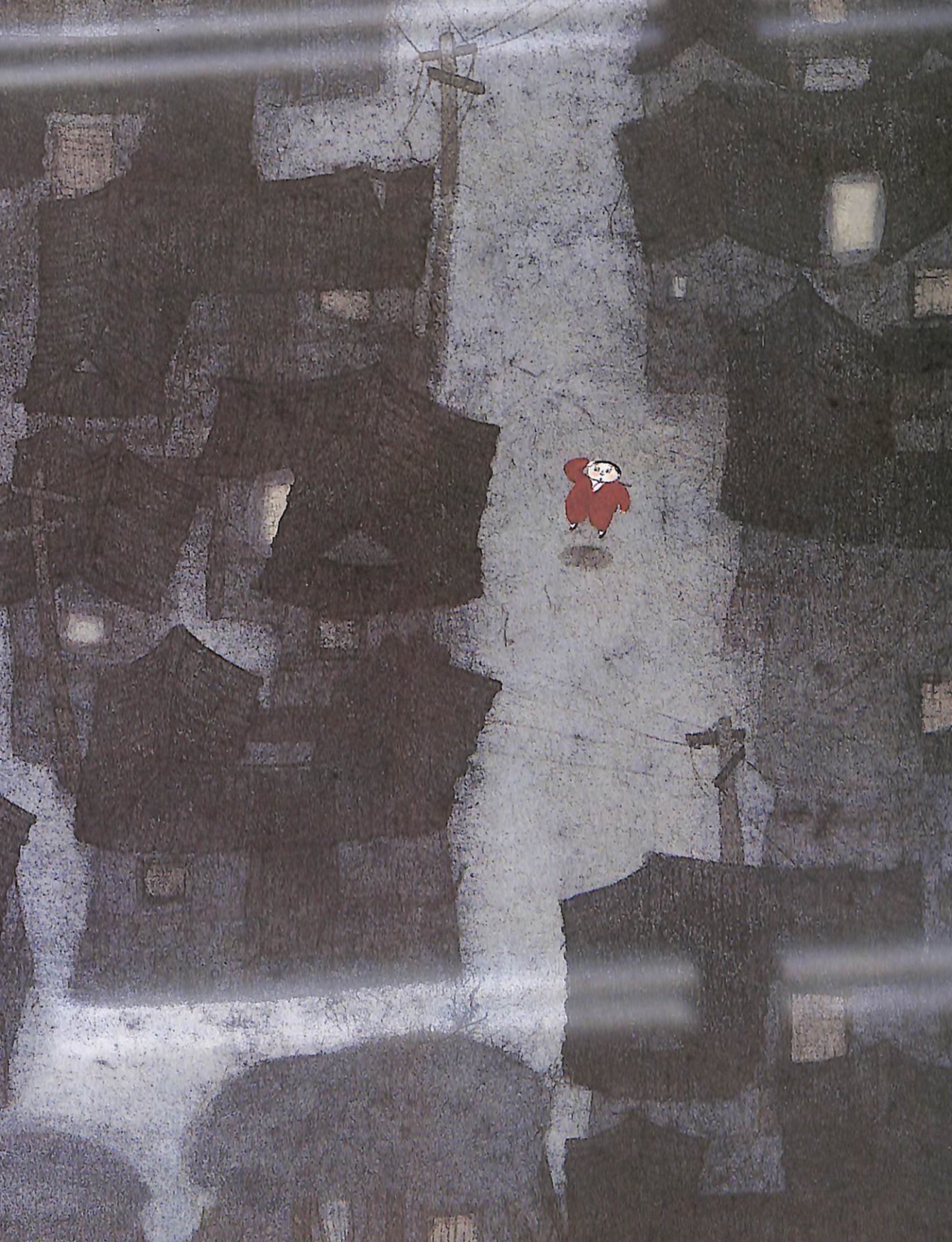


하늘에는 약간 장난기가 있는 야광귀라는
귀신 집안이 있었다.
이들은 해마다 설날 밤만 되면 지구촌으로
내려와서 집집마다 벗어 놓은 신을 신어 보고,
제 발에 맞으면 그 신을 훔쳐 가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집집에서는 신을 잃지
않으려고 신을 방 안에 들여 놓고 자거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문 위에 체를 걸어 두었다.



마침내 부모의 허락을 받고 지구촌으로 내려온 똘똘이는
어느 마을 앞에서 어정거리고 있었다. 나고 나서의
첫나들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날이어서 모두 하루 종일 널을 뛰고, 윷놀이를
하고, 팽이를 돌리며 노느라고 고단해서 그랬던지
마을에는 일찍 불을 끄고 자는 집이 많았다.
불빛이 빤하게 비치고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한밤같이 고요한 집이 많았다.
볏짚으로 지붕을 인 한 오두막집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미
잠이 들어 있는지 숨소리조차
잘 들려오지 않았다.





짐작했던 대로 집집마다 문 앞에는 신이 한 켤레도 없었다. 그러나 똘똘이는 그런 것은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 신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이 집에도 문 위에는 체가 걸려 있었다.

똘똘이는 그 체를 쳐다보고 씽긋 웃었다.

사람들은 야광귀가 체의 그 많은 구멍을 세어 보느라고 거기 정신을 빼앗기는 줄 안다.

또, 체의 구멍을 한참 세다가 몇 개를 세었는지 그걸 잊어먹고 다시 고쳐 세느라 시간을 보내는 줄 안다.

그러다가 어느 새 새벽이 와 있는 것을 알고는 신 신어 볼 겨를도 없이 급히 도망쳐 가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 온 똘똘이였다.





"흥, 내가 그런 얄팍한 꾀에 속아 넘아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똘똘이는, 혹시 신을 다른 데 감추어 두지나 않았나
하고 모퉁이를 돌아가다 빈 나무 상자 위에 북을
안고 있는 곰 한 마리를 보았다.
곰은 양손에 북채를 들고 있었다.
"야아, 예쁘다. 지구촌에도 이런 장난감이 있는 모양 아냐?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고 노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똘똘이는 곰의 등을 살펴보았다.
등에는 쇠로 만든 것인데, 사람의
귀같이 생긴 것이 하나 달려 있었다.
똘똘이는 그것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끄떡도 않았다.



옆으로 한 번 비트니까 깨라락 하고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다.
두 번째 틀었더니 또 깨라락 소리가 났다.
자꾸 틀었더니 깨라락 깨라락 하는 소리가
자꾸만 계속해서 났다.
그러다가 더 안 틀려져서 그대로 상자 위에다
내려놓았더니, 곰은 양손으로 퉁탕 퉁탕
안고 있는 북을 치는 게 아닌가.





똘똘이는 그 장난감하고 노느라고 신 훔쳐 낼 생각도
잊어버리고 밤이 다 새어 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려온 닭 우는 소리에 놀라
그만 제 신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쫓기듯이
하늘나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똘똘이네 가족들은 똘똘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빙 둘러앉았다.
"그래, 네가 큰소리치고 가더니 네 발에 맞는 신은 가져왔느냐?"
"북 치는 곰 놈 때문에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 걸요."
"그런데 지구촌 사람들의 신은커녕 네 신이 한 짝 안 보이는데?"
"아이고, 참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 밥통 같은 놈아, 제 신짝까지 잃고 오는 터에 남의 신을
훔쳐 오겠다고 큰소릴 치고 갔던 거냐?"
"헛 헛 헛 헛 ……."
"헛 헛 헛 헛 ……."
똘똘이를 놀려 주느라고 온 식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웃어 댔다.



# 은행잎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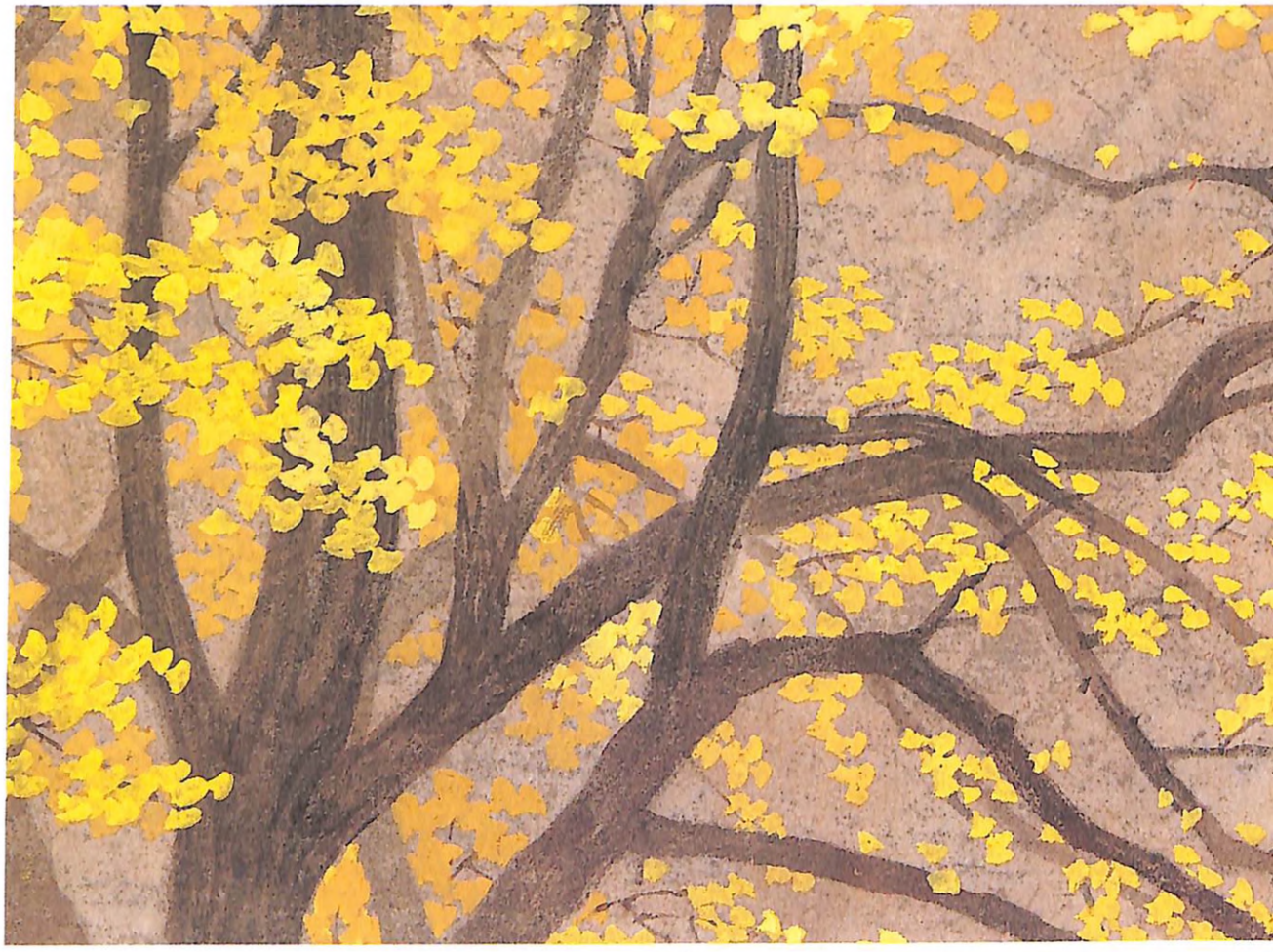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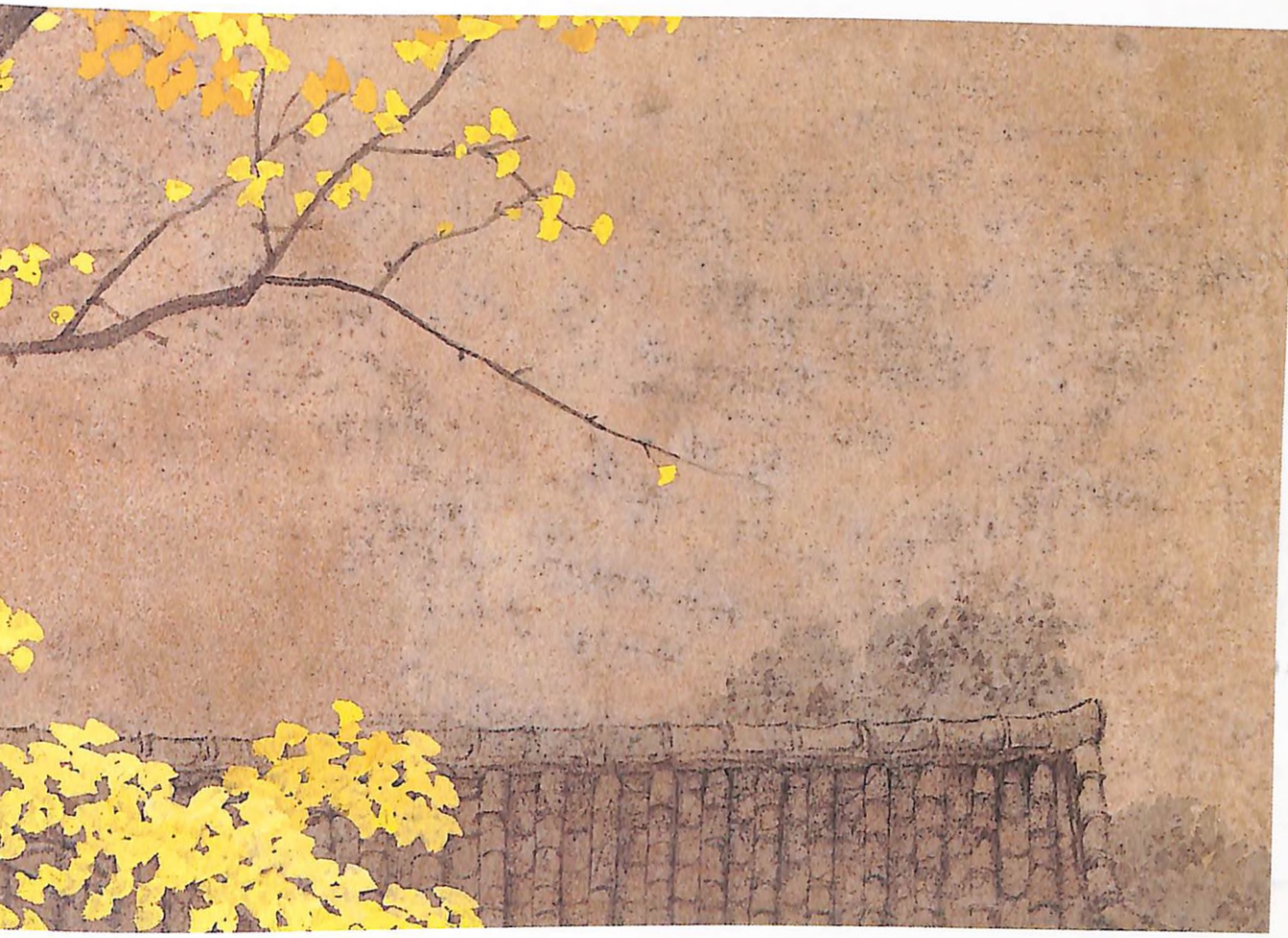
성덕사 큰 절 옆에 늙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짙어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땀을 식히기도 하고
소낙비가 내릴 땐 잠시 동안 비를 피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늦은 가을이라 황금 빛깔의 노란
잎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 하나에는
잎들이 죄다 떨어지고 한 잎만이 달려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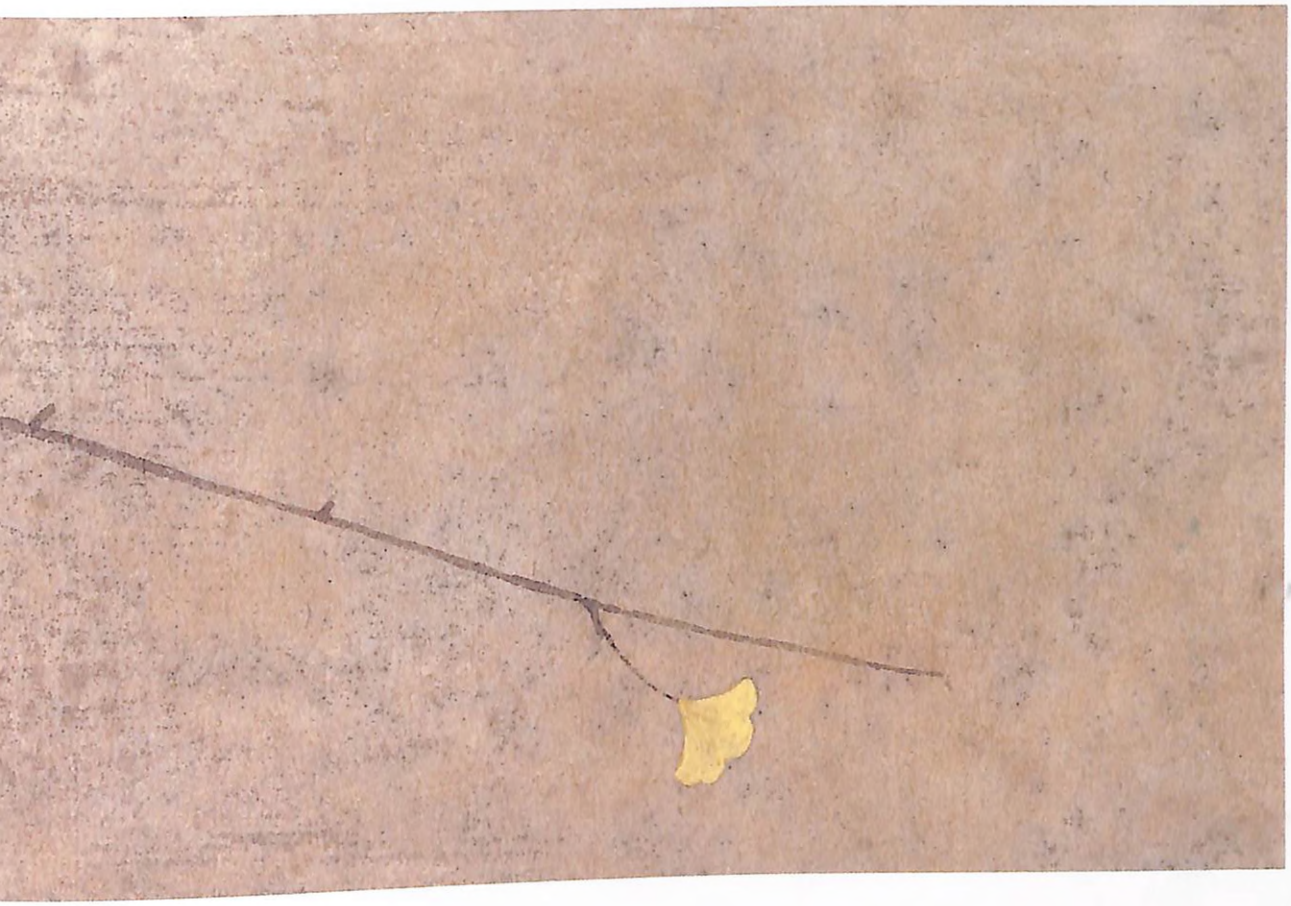
잎은 어머니인 둥치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파란 옷만 해도 고왔는데,
왜 또 우리들에게 이런 고운 노란 옷을 입혀 주지?"
"응, 이런 가을이 되면 너희들과 이별을 해야 하니까
어디를 가도 귀염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지어 입힌 거란다."



"그렇지만, 난 엄마와 떨어지는 거 싫어!
왜 우리가 엄마를 괴롭힌 일이라도 있어서 그래?"
"괴롭힌 게 뭐야? 너희들은 여름내 내가 뜨거운 햇볕에
그을릴까 봐 시원하게 온몸을 가려 준 효자들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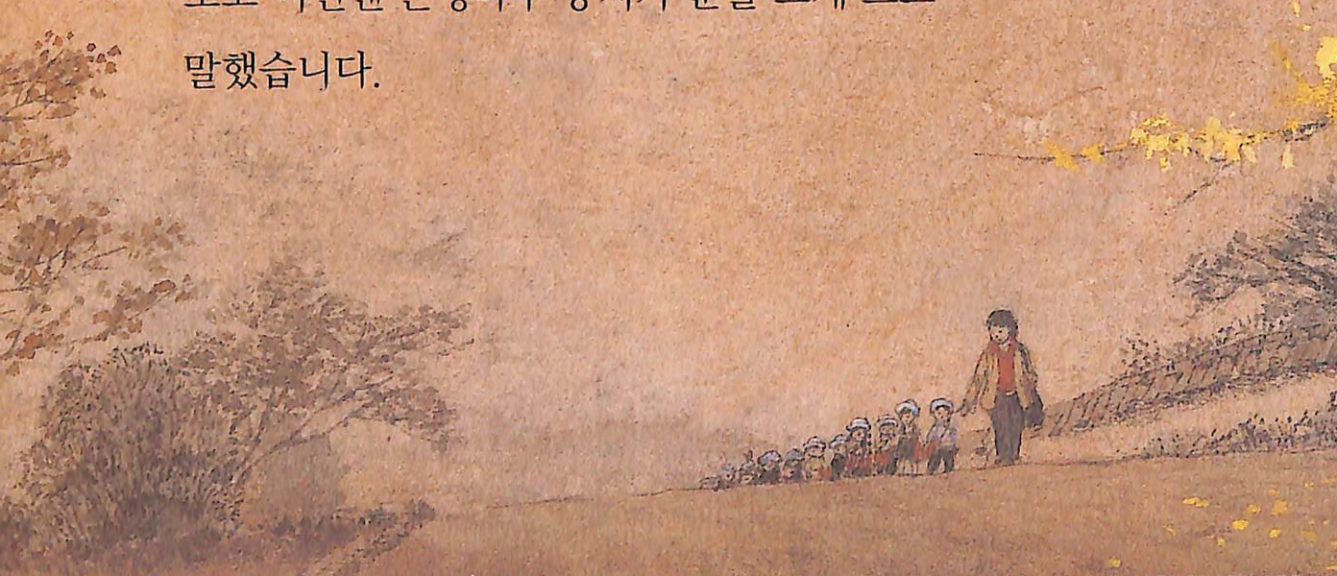


"그런 걸 엄마는 왜 우리들을 떼 보내려고 하는 거지?"
"지금부턴 날씨가 몹시 추워지는 거야.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하면 어른인 나도 참아 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어린 너희들을 차마 떨게 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너희들을 잠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게 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만나게 하려는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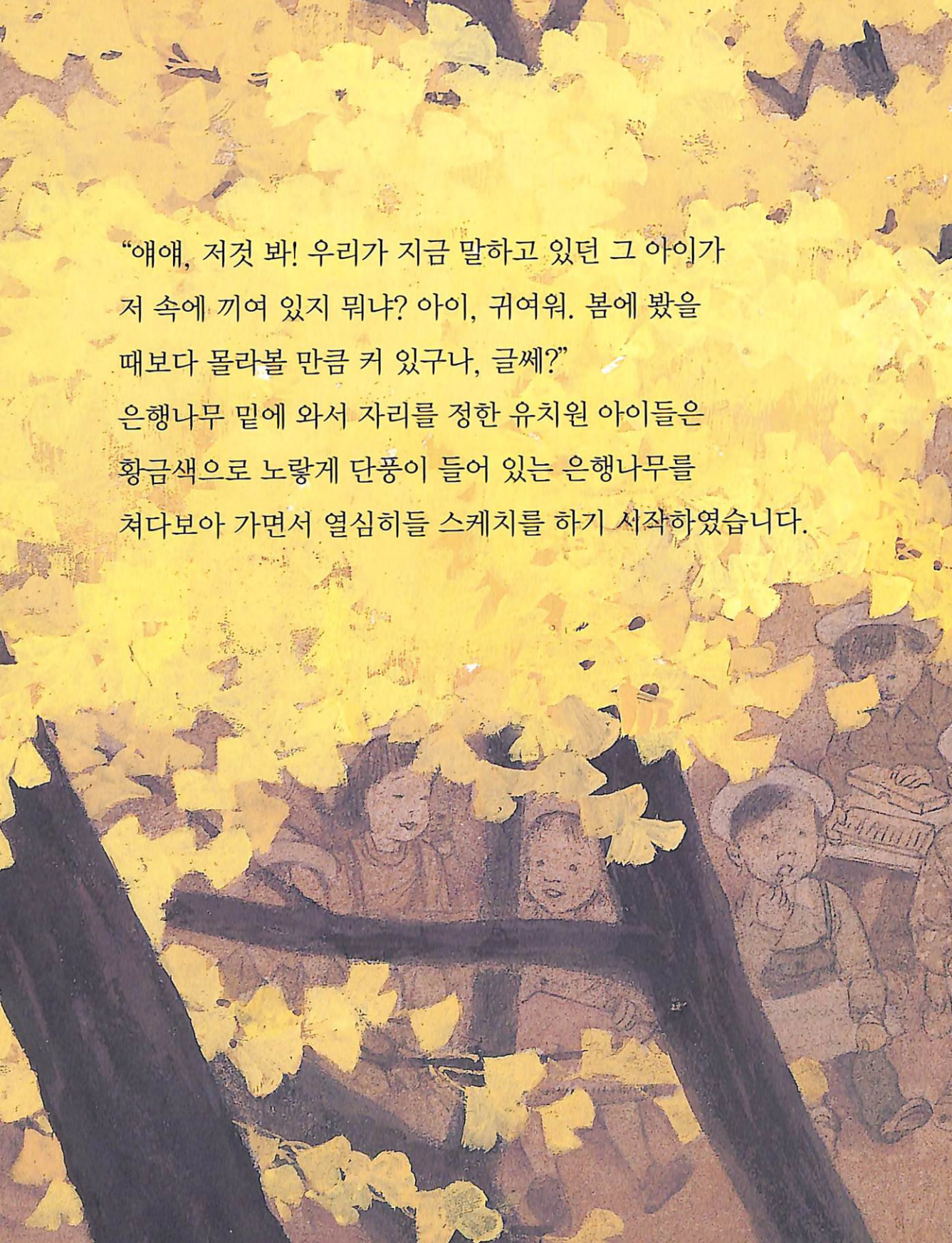


"편안한 곳이라고? 저렇게 바람에 날려서 아무 데로나
굴러다니게 되는걸!"
"걱정할 거 없다.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건 너희들의
마음은 다 엄마의 마음 속으로 와 있는 거니까.
한겨울 동안 긴 꿈 속에서 즐겁게 쉰다고 생각만 하면
그만이야."

그 말을 듣더니 잎은 갑작스레 눈을 크게 뜨면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엄마, 참 꿈이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지난 봄
초파일 불사 때 절에 같이 왔다가 저희 엄마를 잃고
우리 이 나무 아래에서 저물 때까지 혼자 울다 간 아이
있잖았어? 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꿈에서 봤었단 말이야."
"응, 그래그래. 나이가 대여섯 살쯤 되고 눈이 똥글똥글
귀엽게 생긴 아이였었지. 사람들이 나중에 밤에 횃불을
켜 들고 와서 '귀용아, 귀용아.' 하고 찾고 있었으니까
어디에서건 만나게 되었겠지만."
그러고 있을 때에 저마다 화판을 어깨에 걸친 유치원
아이들 한 떼가 은행나무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엔 은행나무 둥치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얘얘, 저것 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던 그 아이가
저 속에 끼여 있지 뭐냐? 아이, 귀여워. 봄에 봤을
때보다 몰라볼 만큼 커 있구나, 글쎄?"
은행나무 밑에 와서 자리를 정한 유치원 아이들은
황금색으로 노랗게 단풍이 들어 있는 은행나무를
쳐다보아 가면서 열심히들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오래오래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은행잎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무래도 떨어져야 한다면 이왕이면
저 아이한테로 떨어져 내려갈래. 내가 저 아이를 좋아하는
만큼 저 아이도 반드시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은행잎이 뚝 떨어져 그 아이의 스케치북 위에
살푼 내려앉자 그 아이는 "아이, 예쁘게 생긴 잎이!"
하곤 그 잎을 스케치북 사이에 소중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림 검사를 할 때 심술쟁이 짝 형보가 스케치북 사이에서 떨어진 은행잎을 집어들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귀용이는 형보를 부르며 뒤따라 달려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은행잎 달란 말이야!"
그러나 형보는 돌려주지 않고 은행잎을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운동장을 요리조리 돌면서 빼앗으랴, 안 빼앗기랴, 승강이를 하는 동안에 난데없이 강한 바람이 휙 불어와 그만 그 은행잎을 빼앗아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하고 있던 은행잎은 이왕
이렇게 날고 있을 양이면 어머니가 혼자 남아 있는
성덕사로나 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잎은 혼자서 속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성덕사 가자
바람아 바람아 성덕사 가자
종 소리 덩덩덩 울리는 데서
울 엄마 날 찾아 울고 있다.





그랬더니 바람은 정말 춤을 추듯이 북으로 북으로 달려가다가 은행잎을 성덕사 옆 은행나무의 둥치 구멍 팬 안으로 떨어뜨려 넣어 주고 가 버렸습니다. 은행잎은 몽그작 몽그작 구멍 팬 안 구들목에 자리잡아 앉으면서 혼자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아, 따뜻해! 아아, 따뜻해! 여기 엄마의 품 속이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마음 편하게 푸욱 쉬고 있을 수가 있지!"



#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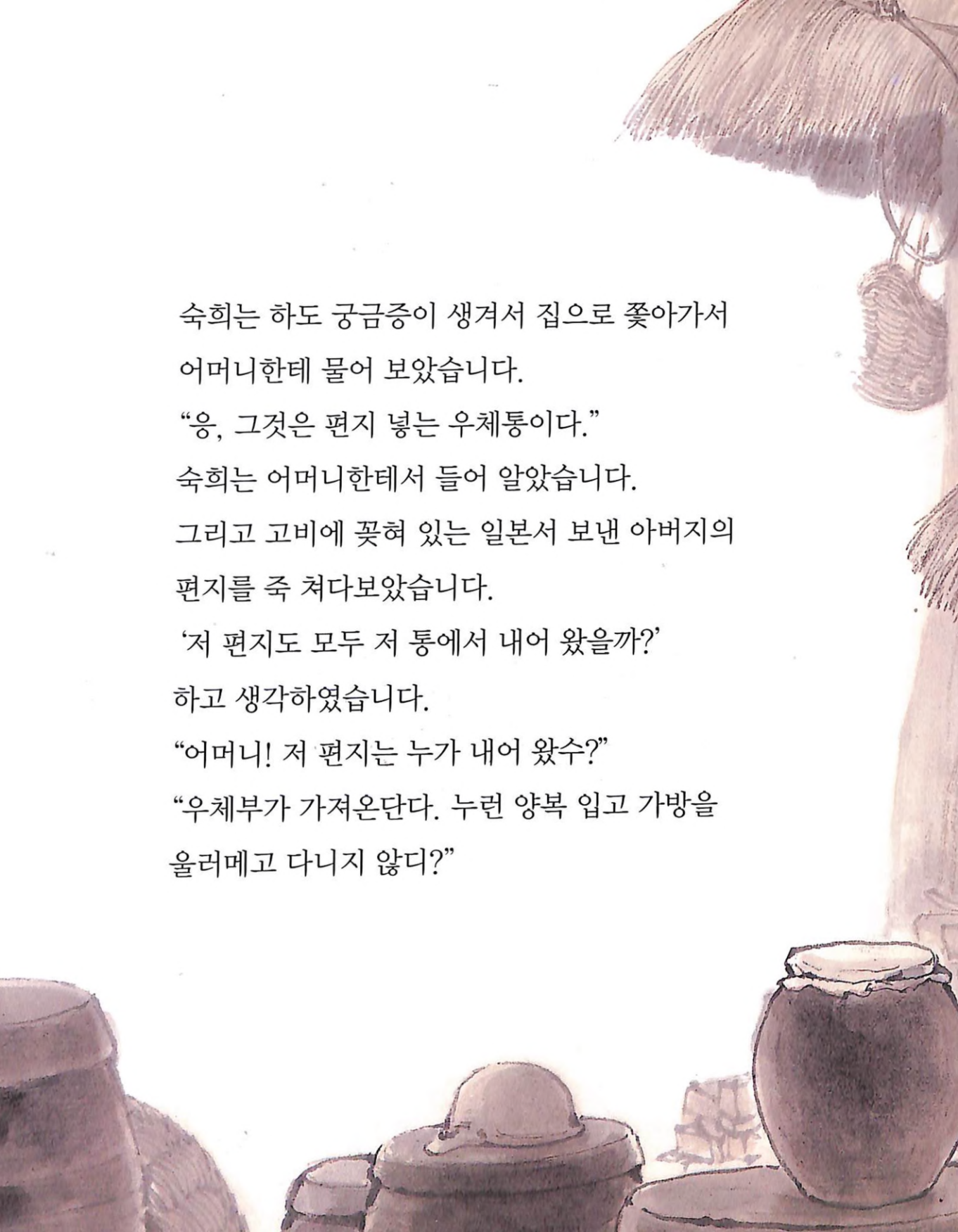


숙희네 집 앞에는 빨간 우체통 한 개가 서 있습니다.
숙희는 아주 나이 어립니다.
그 빨간 목마 같은 것이 언제부터 섰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겐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루는 숙희가 그 우체통 밑에 앉아서 소꿉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 한 분이 오더니
그 우체통 입을 열고는 무엇인지 '땅' 하고
떨어뜨립니다. 돌기둥이나 빗돌만치나 여겼던
숙희는 그 날 처음으로 그 통은 속이 비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애, 그것 참 이상하다. 이렇게 큰 놈이 어찌
저렇게 속이 비었을까?'
'또 그 사람은 이 구멍에다 무엇을 넣었을까?'
'쓰레기통이라면 두께가 너무 적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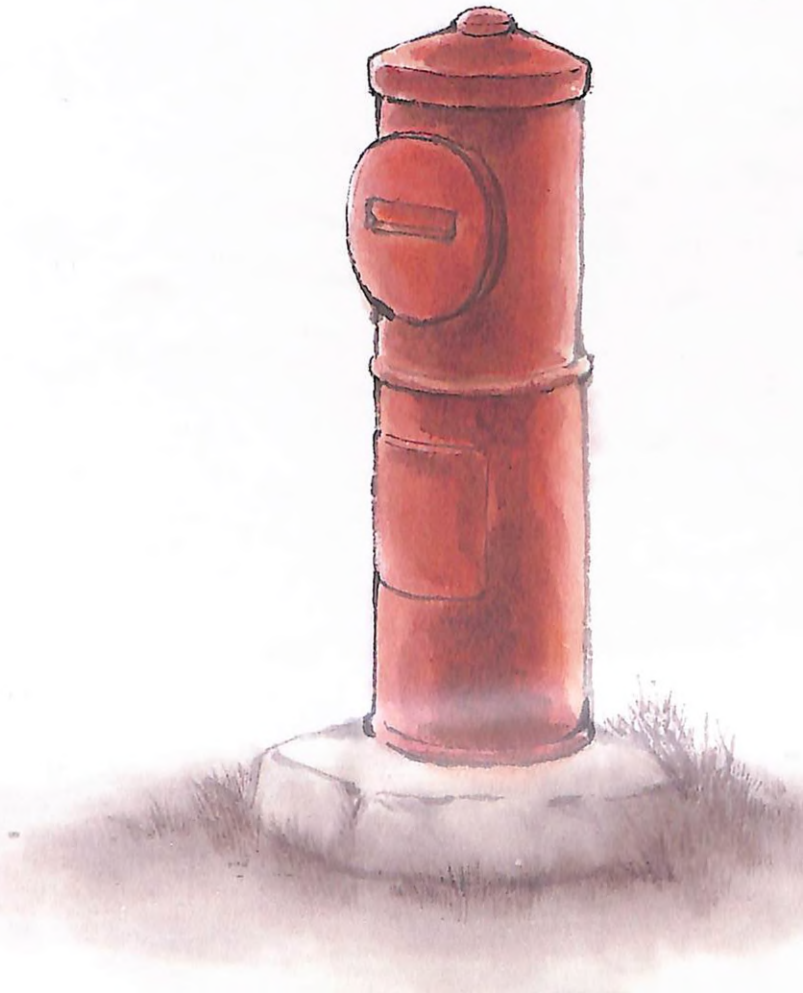
숙희는 하도 궁금증이 생겨서 집으로 쫓아가서
어머니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응, 그것은 편지 넣는 우체통이다."
숙희는 어머니한테서 들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비에 꽂혀 있는 일본서 보낸 아버지의
편지를 죽 쳐다보았습니다.
'저 편지도 모두 저 통에서 내어 왔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편지는 누가 내어 왔수?"
"우체부가 가져온단다. 누런 양복 입고 가방을
울러메고 다니지 않디?"



그래도 숙희는 우체부가 무언지 아무래도 잘 몰랐습니다.
보기야 여러 번 보았을 터이지만 예사로 보았으니
무엇이 무엇하는 겐지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 숙희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러 번
일본 가는 편지를 그 통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숙희는 또 궁금증이 생겨 못 견뎠습니다.
대체 넣기만 넣지 내는 사람은 없고, 또 들어가는
구멍은 있지마는 나오는 구멍은 없으니 저 속에는
편지가 얼마나 꽉 들어찼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끄집어내는 구멍이야 있지마는 일상 그 문을
열쇠로 잠가 두는 까닭에 숙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저 예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우체부는 날마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운 밤에
내어 가는 터이므로 숙희는 한 번도 우체부가
편지를 꺼내는 것을 못 본 까닭에 그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그 통에서부터 땅 속으로 쭉 구멍이 뚫려 있구나.'
하고 편지를 넣으면 그 편지가 땅 밑 구멍을 굴러가서
저 쪽에 닿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숙희가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를 넣으면
그 편지가 쭉 땅 속을 굴러가서 아버지가 있는 공장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편지하려면 일본까지 저절로 구멍이
쭉 통해 있고, 진주 아저씨네 집으로 하려면 또 그 집까지
저절로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숙희 말대로 하면 땅 밑에서는 밤낮으로 편지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숙희는 그 우체통이라는 것이 퍽 재미가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든지 자기도 재미있는 짓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때도 지금과 같은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양식이 딸깍 떨어져서 밥을 지을 쌀도 보리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일본서 아버지 편지도
안 옵니다. 돈도 오지 않습니다.
그 날 어머니는 개떡을 쪄서 숙희에게 주면서
집이나 잘 보아라 하고 자기는 외갓집으로
양식을 꾸러 가고 없었습니다.
숙희는 할머니와 함께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 날 밤이 오래 되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 고개에는 여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숙희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쿠룩 잡니다. 숙희는 보자기를 끌러 놓고
개떡을 한 알 두 알 먹었습니다.
먹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옳다, 이 개떡을 아버지한테 좀 보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버지가 논에 물을 푸고 와서
개떡을 맛있게 먹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종이에다 똘똘 야물게 쌌습니다.
'땅 속 구멍으로 굴러갈 텐데 그 동안 썩지는
않을까? 또 흙이나 묻지 않을까?'
'옳지, 그 전에 아버지한테 헌 옷이 올 때
보니까 유지로 쌌더라. 그렇다. 그래야 썩지도 않고
흙이 묻지도 않고 또 물이 묻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궤 속에서 유지 조각을 꺼내어 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두텁게 쌌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 있는 공장 이름을
쓴다더란 말을 생각하고는 글을 쓸 줄은 모르고
그냥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 봉투를 그 위에다
한데 노끈으로 매어서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 우체통 구멍에다 '탕'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하여 놓고 보니 숙희는 공연히 가슴이
울렁울렁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숙희야, 네가 보낸 개떡은 참 잘 먹었다. 어찌 그리
맛이 좋은지 아까워서 아까워서 두고두고 먹는다.'
아버지한테서 이러한 편지가 올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어머니는 일찍 아니 돌아왔습니다.
저녁때에 숙희는 산기슭까지 마중을 나갔더니
마침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양식도 못 얻고 풀이 죽어 왔습니다.
숙희도 자연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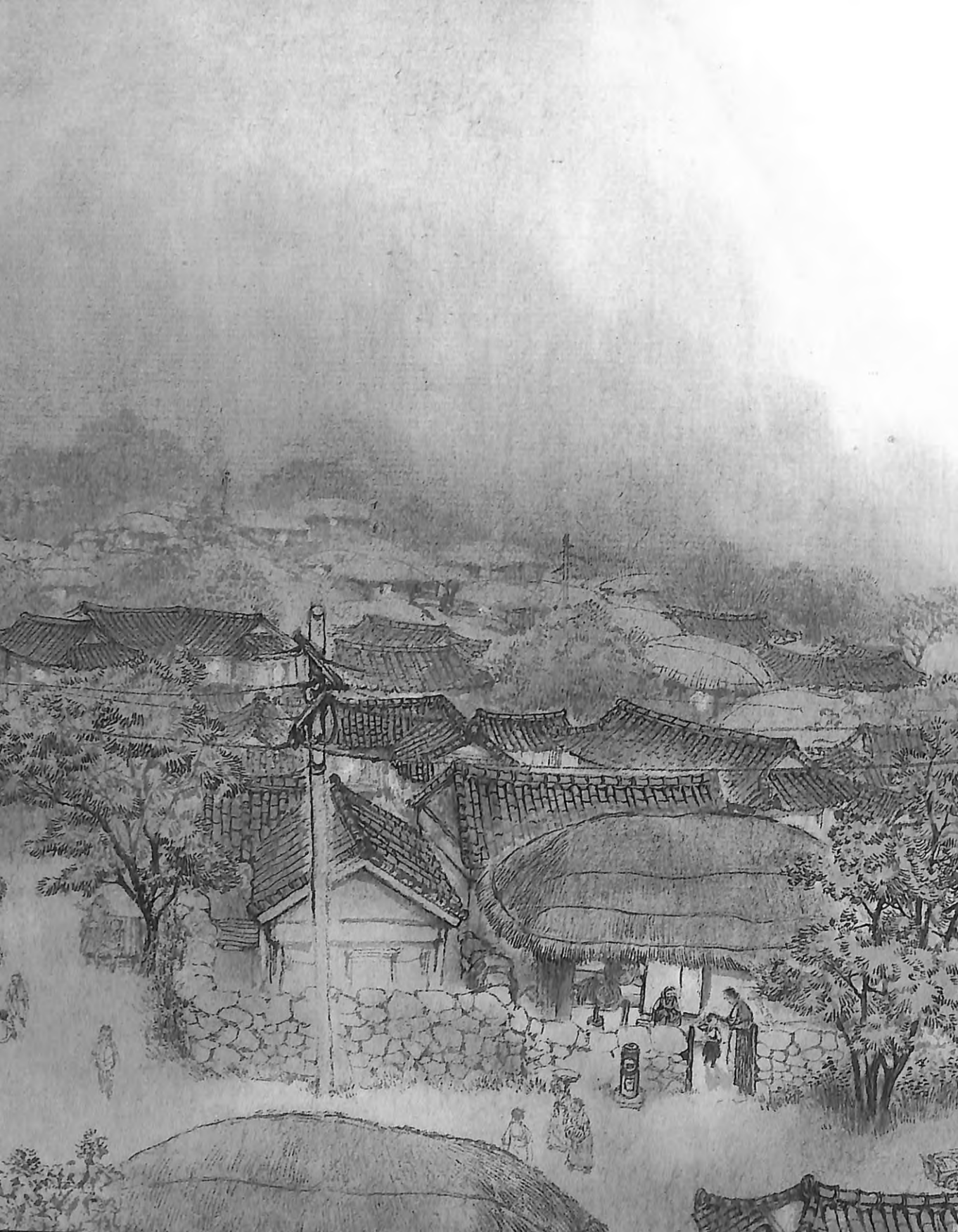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는 무엇을 내어 주면서
"얘, 이것이 일본 너 아버지한테서 왔는가 부더라."
하면서 주는 것은 숙희가 아침에 우체통에 넣은
그 개떡뭉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걸 왜 돌려 보냈을까.
맛이 없든가 보이. 아이그 참 미안해서."
숙희는 울 듯이 마음이
쓸쓸하여졌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며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체통에 넣는 것이 아니다.
또 주소를 똑똑히 써야 되고 우표를 붙여야 한다.
아침에 우체부가 내다가 보고 그냥 도로 보내 준 게다."
하고 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숙희는 오늘 처음으로 들어 알았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가 꺼내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편지는 차에
태워서 배에 태워서 일본 아버지가 있는 곳의
우체국에 대인다. 그러면 그 편지를 역시
우체부들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아버지 있는
공장까지 가서 전해 주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부칠 때에는 반드시 우체국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 숙희는 우체통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때에 보니 참으로 편지 꺼내는 문 옆에
조그만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우체통〉에 실린 글은 유족의 허가를 받아 현대의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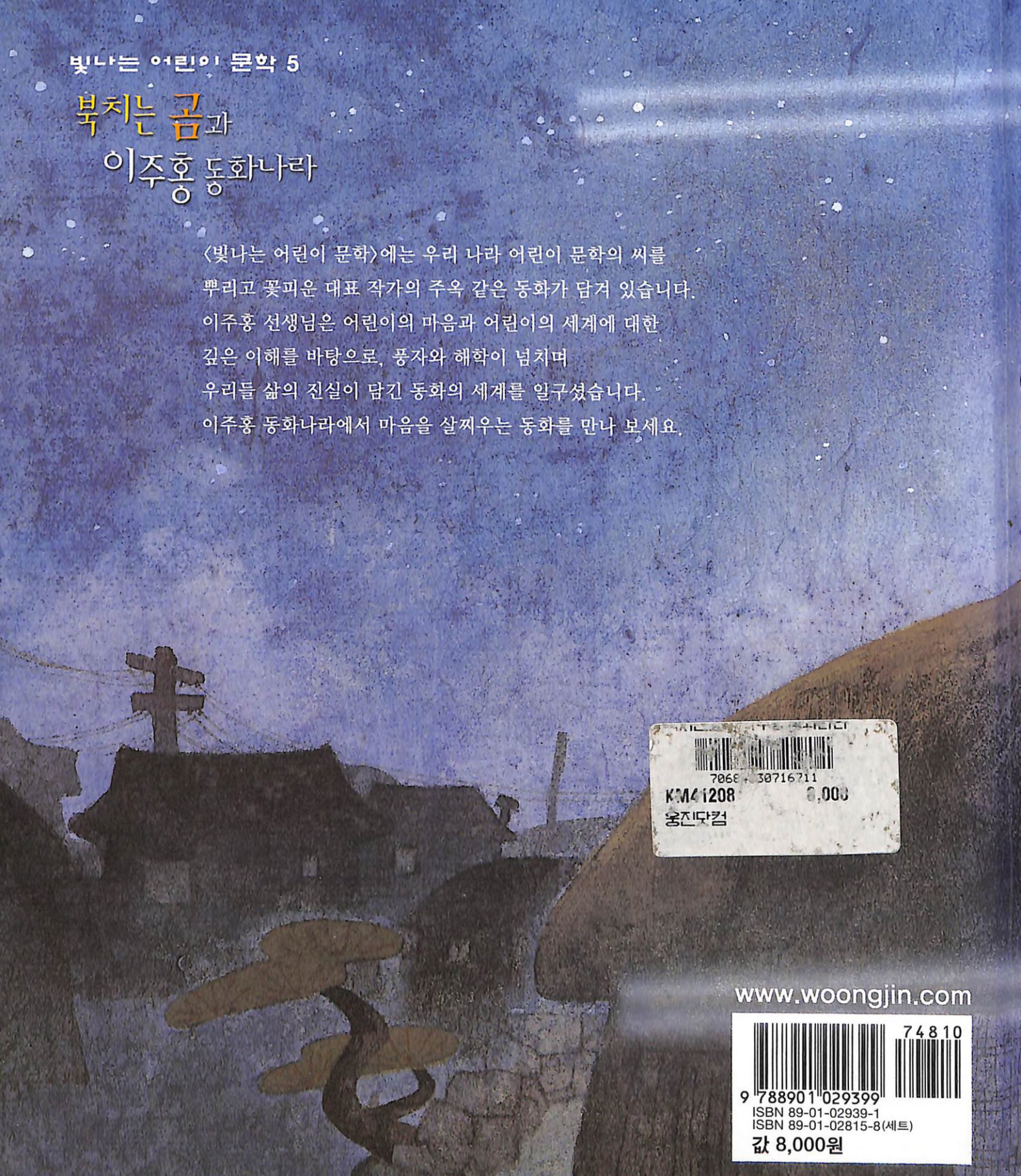
■ 수정 내용

49쪽: 구녕 ▶ 구멍(이후 '구멍'으로 통일) | 50쪽: 체부 ▶ 우체부(이후 '우체부'로 통일)
62쪽: 우편통 ▶ 우체통(이후 '우체통'으로 통일), 그러구도 ▶ 그러고도
64쪽: 수가 없어졌습니다. ▶ 말이 없어졌습니다.
68쪽: 우편국 ▶ 우체국(이후 '우체국'으로 통일), 태여서 ▶ 태워서

빛나는 어린이 문학 5

# 북치는 곰과 이주홍 동화나라

〈빛나는 어린이 문학〉에는 우리 나라 어린이 문학의 씨를
뿌리고 꽃피운 대표 작가의 주옥 같은 동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주홍 선생님은 어린이의 마음과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치며
우리들 삶의 진실이 담긴 동화의 세계를 일구셨습니다.
이주홍 동화나라에서 마음을 살찌우는 동화를 만나 보세요.



7068 30716711
KM41208 8,000
웅진닷컴

www.woongjin.com
74810
9 788901 029399
ISBN 89-01-02939-1
ISBN 89-01-02815-8(세트)
값 8,000원